

제 4 회 세계한국학대회 (종교분과)  
김시현(金時賢, Kim, Shi Hyun)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 전공)  
08-30-08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주제: <재미 한인의 종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Theme: Korean Studies Interfacing with the World"

**Title: Religion of Korean American: Focusing on Christianity**

##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논제로 대두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풍조에 따라 한국종교학 분야에서도 세계화의 논의와 종교지형의 변동에 대한 담론과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종교의 지형변동은 한민족의 디아스포라(diaspora, 離散)적 현상의 출현과 더불어 한국종교가 점차 해외 한인사회로 확산되어온 과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03 년은 한국인이 1903 년에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민을 시작한 지 100 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국사편찬위원회의 2005 년 조사에 의하면 200 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것은 재중 한인 240 만명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한다.<sup>1</sup> 더욱이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었던 1965 년 이후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인종, 언어, 그리고 종교를 가진 이민자들이 이주하였다. 그리고 종교는 이민사회의 형성에 이주민들의 소통과 결속의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더욱이 재미 한인은 인종적·문화적으로 미국의 다른 주류 그룹과 구별되지만 재미 한인의 다수가 미국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Christian faith as native-born Americans)를 신앙하고 있다.

재미 한인의 전체 인구 가운데 개신교의 비율은 60~65%, 가톨릭의 비율은 10~15%, 불교의 비율은 4~6%이며, 원불교와 무속의 비율도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대다수의 재미 한인이 미국에서 토착화된 개신교를 신앙한다는 점은 재미 중국인과 재미 일본인에 비해 특이한 모습이다. 재미 한인 사회에서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 년 남한 인구에서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세 배가 넘고 있다.<sup>3</sup>

왜 다수의 한인이 미국에서 다른 종교가 아닌 개신교회에 소속이 되었을까? 그리고 개신교 이외 다른 종교들은 미국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을까? 개신교회는 그림 재미 한인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 왔으며 그 특성은 무엇일까? 재미 한인의 매우 높은 비율의 개신교 참여도로 인한 한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

\* 본 논문은 2008 년 8 월 2 일 동아시아종교문화학회 주최로 열린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재미 한인 교회의 미래』를 참조한 것이다.

<sup>1</sup>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 편람』, 과천: 탐구당 문화사, 2005, 1 면.

<sup>2</sup> 국사편찬위원회, 『북미주 한인의 역사(하)』 과천: 중앙 P&L(주), 2007, 169 면.

<sup>3</sup> 2005 년 문화관광체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남한 전체 인구 47,041,434 명 기준으로 개신교 8,616,438(18.3%), 천주교 5,146,147(10.9%), 불교 10,726,463(22.8%)의 비율로 분포한다. 따라서 남한 인구의 개신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3%인 반면 재미 한인의 개신교 비율은 200 만 전체 인구 중 60~65%의 비율로 남한 개신교 인구의 세배가 넘는다.

이러한 개신교는 이민 1 세대 이후 2 세대와 3 세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성을 유지하며 존속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재미 한인들이 미국의 종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앙하고 있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인 공동체를 형성한 역사와 역할, 그리고 특성을 시대별로 검토하고 이로 인해 재미 한인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며 재미 한인 종교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I. 재미 한인공동체와 종교 형성의 역사

먼저 미국 종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전반적인 종교 상황의 전개를 살펴본다.<sup>4</sup>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각 나라의 이민자들은 이민 당시 모국에서 믿던 종교를 그대로 미국으로 가지고 온다. 이것은 미국의 본래적 특수성인 종교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미국 이주 이후 각 이민 집단은 이주 이전의 신앙 형태나 단체 운영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각 이민자 집단의 미국 현지에서 종교 이식과 정착의 과정은 단순화시키기 매우 어렵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개신교 교도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개신교 국가 기반을 마련한다. 19 세기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와 독일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유태교도의 이민은 미국을 유대-기독교(Judeo-Christianity) 국가로 변모시킨다. 미국 내 종교 양상은 1965 년 미국 이민법 개정 이후 더욱 다양해졌다. 중국, 베트남, 태국 이민자의 종교생활은 불교를, 인도 이민자는 힌두교를, 아랍,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민자는 이슬람교를, 그리고 멕시코와 그 외 남미 국가, 필리핀, 베트남 이민자들은 가톨릭 신앙을 미국에 정착시킨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전반적인 종교 상황은 이민자의 종교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민 후에 각 이민자 단체마다 대체적으로 개신교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민 3~4 대가 되면 더욱 뚜렷해진다.

개신교는 재미 한인의 종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초기 한인 이민자들 중 다수의 종교가 개신교였기 때문이다. 1903 년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는 주로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의 적극적인 장려 속에서 이민을 결정하였다. 당시 101 명 중 40%가 개신교인으로 인천에서 미국인 목사였던 조지 허버트 존스가 목회를 하던 영동교회인들이었다.<sup>5</sup>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은 1882 년 제물포 조약 직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910 년 한일합병 당시에는 수백명에 이르렀다.<sup>6</sup> 대표적 사례로 초기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1905 년 노동이민자로 미국에 이주하여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1920 년대 하와이로 이주하여 '한인독립교회'를 세워 목회 활동을 하였다. 1903 년부터 1905 년 사이 7226 명이 하와이로 이주하였고, 1905 년에는 이 중 60% 의 한인이 하와이에 남고 40%의 한인은 한국, 미국 본토, 멕시코 등지로 이주하였다. 1910 년 1066 명의 사진신부(Picture Brides)가 하와이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 1924 년 '동양인 배척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진신부의 이주가 있었다.

<sup>4</sup> 류대영, 『미국 종교사』, 청년사, 2007.

<sup>5</sup> Chang, Edward Taehan. "The Korean Diaspora and Rethinking Asian-American Theory" in Japanese Studies Around the World 2005: The Korean Diaspora and Strategies for Global Networks. Japan: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2006, p.46.

<sup>6</sup> Min, Pyong Gap and Kim Jung Ha. *Religions in Asian America: Building Faith Communities*. CA: Altamira Press, 2002, pp.185-213.

그리고 이들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은 개신교 나라인 미국에서 개신교인으로서 환영을 받는다. 이후 미국 개신교단은 한인 이민자들의 개신교를 지원하였고 이 지원은 개신교도를 늘어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또한 당시 개신교 성행의 이유는 개신교회의 특성인 회중 모임을 정기적으로 빈번히 가진 것에 있다. 이 회중 모임은 한인들에게 여러 행사 참여를 유도했다. 그리고 한인의 참여는 종교적 욕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였다. 이 회중 모임의 활성화는 1950 년 하와이에 32 개 한인 개신교회가 있었고 약 2,800 명의 개신교인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증명된다.<sup>7</sup>

한국 이민자들의 목적지가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이동하면서 재미 한인 종교 상황은 어떠했을까? 1951 년부터 1964 년에는 전쟁신부(War Brides, GI Wives) 6,423 명이 이민하였으며 군인신부가 1960 년대 1,500 명씩, 1970 년대 2,300 명씩 꾸준히 이민하였다. 1955 년부터 1966 년에는 전쟁고아 6,293 명이 홀트 입양단체(Holt Adoption Agency)를 통해 입양되어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1950 년대 미국 선교사들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신교 신학을 공부할 때 장학금을 지급하며 후원을 하였다. 1965 년 이민법 효력이 있는 이후 이민 역사는 다수 중산층과 유학생으로 지속되었다. 1970 년대 이후 간호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취업이민으로 이어졌고 이때마다 이민자들의 정착은 미리 알고 지내던 선교사들과 미국 현지인 교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sup>8</sup> 그리고 1980 년대 이후 미국은 개신교인이 신앙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게 약속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주되었고 지속적으로 한인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재미 한인들의 개신교는 미국의 개신교와 성서의 해석, 표현 방식, 조직 운영 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개신교라는 이유로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다른 종교인들보다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다. 미국 현지인 교회에선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선교행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도 하여 교단이나 교회차원에서의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한인교회에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신분적 보호 장치인 영주권 스폰서쉽 등으로 한인 목회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기도 하였다. 이런 미주 개신교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한인 교회들이 생겨났고 주말을 이용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 신앙을 통한 위로를 얻게 되는 등의 효과로 한인들의 모임들도 마련되었다. 이제 개신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한인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내에는 1 세대 이민자와 아주 적은 수의 1.5 세 또는 2 세대의 독립된 교회를 포함하여 3,500~4,000 개의 한인 개신교 교회가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본 개신교는 이민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개신교의 발전상에 비해 재미 한인 천주교는 그 출발 자체가 훨씬 늦은 1960 년대 후반에 교회가 창립되었다. 미국 내 처음 천주교회는 1967 년 당시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에 재학했던 한국 유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신도 확인사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형성되었다.<sup>9</sup>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공식적인 첫 번째 한인 천주교회는 1969 년 1 월 로스앤젤레스의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100 여명의 신도들의 첫 미사에서 시작되었다.

개신교에 비해 천주교 인구 비례는 재미 한인의 10~15%에 해당하는 소규모 종교 단체이다. 2000 년 당시 재미 한인 천주교 인구는 7 만여명으로 집계되었고 134 개의 교회가 존재한다. 한국교구에서 파견된 사제 81 명을 포함한 신부 사제수는 102 명, 수녀 79 명, 그리고 부제는 16 명이고 미국에서 서품을 받은 1.5 세대 신부는

<sup>7</sup>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해안, 2003.

<sup>8</sup> 미국통계국에서 ‘한국인’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 년이다.

<sup>9</sup> 한미동포재단, 『미주 한인이민 100 년사』, 삼화인쇄, 2002, 171 면.

24 명이다.<sup>10</sup> 당시 남가주에 19 개의 천주교회로 25,531 명, 뉴욕주 10,548 명, 뉴저지주 4,818 명, 일리노이주 4,537 명의 신도가 있었고 가장 적은 수의 신도는 미국 동남부 테네시주의 신도 30 명이 있었다. 천주교는 교회 설립이 매우 자유로운 개신교와는 달리 교황청의 통제로 교회가 설립되고 목회자가 파송되는 등 이합집산이 자유롭지 않은 구조상의 차이로 이민 초기사부터 규모가 작았다. 더욱이 미국 내 개신교세가 강한 이유로 한인 사회 내 천주교의 보급 확산이 어려웠다.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조지아 주의 대도시 아틀란타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신교회 300 여개가 존재하는 것에 비해 천주교회는 2000 여명의 신도로 구성된 단 하나가 운영되고 있다.

재미 한인 개신교와 비교하여 불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재미 한인 인구 가운데 불교의 비율은 4~6%이며 2005 년 현재 미국 내 한인 불교 사찰은 100 개가 넘는다. 1930 년부터 1960 년까지 미국 내 한국불교의 전파는 몇 명의 한인 특정 승려의 활약으로 미국인 포교가 활발하였다. 기록상 1930 년대 말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 불교대회’에 참석한 한국인 도진호 스님의 미미한 활동을 시작으로 1960 년대 샌프란시스코 선원에서 조계종 서경보스님의 활약, 1972 년 프라비던스(Providence)의 재미홍법원을 설립하고 2 천여명의 미국인 제자들을 교화한 승산 행원 선사의 활약으로 재미 한인 초기 불교가 전파되었다.<sup>11</sup> 그리고 미주 불교의 포교활동은 전적으로 개신교회와 한인 목사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개신교와는 달리 미국인<sup>12</sup>과 한국인을 포함한 불교 학자들의 연구 활동으로 전파된 차이도 있었다. 그러나 불교 사찰의 수가 개신교회에 비해 현저히 작아서 미국 전역의 분포까지 가늠할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에 22 개를 포함하여 미국 동부에 42 개, 캘리포니아의 32 개를 포함하여 서부에 55 개, 그리고 중서부에 11 개의 사찰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의 전파와 정착은 주로 뉴욕과 LA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수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중소 도시에서는 역시 개신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외 재미 한인의 종교로 무속인의 미미한 활동이 있고 신종교의 움직임 중 하나로 원불교의 활동이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재미 한인들이 신앙하는 대표적 종교는 개신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재미 한인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특성을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 III. 재미 한인 종교의 역할과 특성

종교는 어떤 사회 속에서 때로는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결속에 기여하기도 한다. 종교가 사회통합에서 하는 역할은 다양하고 복잡하다.<sup>13</sup> 재미 한인사회에서 개신교의 역할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재미 한인의 개신교가 사회통합의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한인 공동체와 민족 정체성 형성에 기여를 했는지 시대별 변천사와 함께 고찰해 보겠다. 이것은 한국 종교 중에서 개신교가 초기 재미 한인 이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미 한인 민족 공동체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온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범위는 재미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1903 년부터 현재까지 세 시기로 구분하여

<sup>10</sup> 위의 책, 171 면.

<sup>11</sup> 위의 책, 185-190 면.

<sup>12</sup> 대표적으로 UCLA 의 한국학 연구센터를 개설한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 박사가 있다.

그는 1974 년부터 1979 년까지 5 년간 순천 송광사에 출가하여 해명이라는 한국 범명을 받은 승려로 살았었다. 그는 현재 한국불교를 알리는 대표적인 동양학자로 알려져 있다.

<sup>13</sup> 김종서, 『종교사회학』, 서울대출판부, 2005, 180-182 면.

시기마다 재미 한인 사회내 개신교가 정착하며 민족정체성을 형성해 온 역사와 특성을 분석해 본다.

재미 한인 이민의 역사를 장태한은 4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로 103 명이 노동자로 이주한 1903년부터 1924년까지를 제 1기로, 1910년부터 1945년 이전의 사진 신부(picture brides)등이 미국으로 이주한 시기를 제 2기로, 1945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후의 전쟁신부, 고아, 입양 등으로 두 번째로 많은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한 시기를 제 3기로, 1965년 새로운 이민법 효력 이후의 다수 중산층이 이민한 시기를 제 4기로 구분한다.<sup>14</sup> 한편, 2006년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출간한 『미주한인공동체 이야기』의 저자인 이선주에 의하면 재미 한인 개신교 교회사를 교회의 발생과 쇠퇴를 중심으로 제 1기를 1903년부터 1945년까지, 중간기로 1945년부터 1965년까지, 그리고 제 2기로 1965년 이후부터 2003년으로 나누고 있다.<sup>15</sup> 장태한의 재미 한인 역사 구분은 여러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편성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선주의 구분법은 ‘개신교의 교회사’를 중심으로 재미 한인 역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선주의 역사 구분법을 따르도록 한다. 그 이유는 본장의 논의가 재미 한인의 개신교와 민족 정체성 관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서 제 2기의 구분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미 한인 개신교의 활동을 고려해서 1965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겠다.

#### 1. 제 1기 재미 한인 개신교의 역할과 특성 (1903-1945)

재미 한인 역사의 제 1기에 해당하는 민족정체성은 새로운 이민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신교를 기반으로 하여 일제식민지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이다. 당시는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저항할 상대가 있었고 모두가 이민 1세대로 민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여유 없이 적응하기에 바빴던 시기였다. 당시 이민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중노동을 하고 공휴일인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향수를 달래며 세월을 보냈다. 이들은 이민 초기부터 하와이 여러 섬의 농장마다 한인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이민자들도 곳곳에 한인교회를 세워 공동체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있는 후 초기 재미 한인들의 활동은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모국에 돌리며 공고히 하였다. 대다수 한인교회 교인들이 중노동과 극심한 차별대우와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모금을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한글 교육을 하는 등 민족독립운동에 열심이였다. 특별히 1919년 3·1운동이 있는 후 이들은 자진해서 중국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도하며 막대한 재정으로 후원하였다.<sup>16</sup> 이때 활약한 인물로 개신교인이며 당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의 안창호를 들 수 있다.<sup>17</sup> 한인사회는 그를 1919년 5월에 상해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도록 보내는 연합적인 행동을 보이며 본격적으로 민족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승만의 경우에도 3.1운동이 반발한 후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용설, 백낙준, 조병옥,

<sup>14</sup> Chang, Edward Taehan, "The Korean Diaspora and Rethinking Asian-American Theory" in Japanese Studies Around the World 2005: The Korean Diaspora and Strategies for Global Networks. Japan: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2006, pp.46.

<sup>15</sup> 이선주, 2006, 『미주한인공동체 이야기: 고난과 영광의 100년 (상)』, 크리스천 헤럴드, 20-30면.

<sup>16</sup> 이상일, “3.1 운동 이후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전개”, 『暴東古典研究』, 16, 1999. 이 글은 당시 『신한민보』를 중심으로 대한인국민회, 대한여성애국단과 대한부인구제회와 같은 재미한인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정모금운동과 선전·외교활동 등을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개신교 교회에 소속된 개신교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sup>17</sup> 이선주, 22면.

장리옥, 그리고 김활란은 미국 유학 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무릎쓰고 한국으로 돌아와 교육계와 교계에 진출한 사람들이다.<sup>18</sup>

제 1 기 재미 한인은 한일합방과 함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새로운 땅에 이주한 낯선 경험을 하면서 개신교의 테두리를 형성하였다. 개신교는 하나의 중심적인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더 이상 모국의 땅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원거리 민족정체성’을 간직한 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효과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다.

## 2. 중간기 재미 한인 개신교의 역할과 특성 (1945-1965)

이 시기 동안 한국사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정황 가운데 재미 한인의 민족 정체성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모국의 어려움을 동정하며 ‘조국의 건국과 재건’에 힘을 쏟는 때였다. 1945년 8월 15일의 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는 후 한국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으나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전쟁이 있었고 남북이 분단되기에 이르렀다. 1945년 일본 지배에서 해방된 조국으로, 재미 한인 중 혹자는 남한으로 혹자는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약 9,000명의 재미 한인은 미국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유학생과 연구원, 그리고 정부 관리나 기업체 주재원들이 파견되어 미국에 들어왔으며 당시 한국과의 교류나 접촉도 매우 간헐적이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재미 한인사회는 해방 이전에 형성되었던 한인공동체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였고 재미 한인들 각각은 넓은 미국 대륙에 파묻혀 살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로 빈손의 해방과 참혹한 전쟁에 시달리는 민족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 재미 한인들은 한인들과 미국사회에서 구호품을 모아서 한국에 보내는 일 등을 하였다. 대표적인 재미 한인 단체였던 교회가 이런 일에 주력을 하였던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었다. 특히 당시 한인 교회는 한국 유학생과 연구생들을 돕는 것이 바로 ‘조국을 재건하는 일’을 돕는 것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교회 주최로 장학금 바자회를 열고 미국인 저명인사를 통해 입학허가서를 받아주는 등 개신교회 여성들로 구성된 여전도회에서는 한국 음식을 마련하여 명절에 유학생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등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유당과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주의 정치 회복을 주장하며 미국 속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갔다. 이 시기에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한인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재미 한인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대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한국인으로서 민족정체성이 더욱 강하여 ‘이중적 귀속감’으로 인한 혼돈을 경험하기보다는 모국인 한국에 대해 특정한 충성심을 보였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라는 단체는 이 모국을 향한 민족 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는 기제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이러한 당시 다수의 재미 한인의 생활은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정작 미국사회와는 괴리되어 사는 것이었다.

## 3. 제 2 기 재미 한인 개신교의 역할과 특성(1965-현재)

1965년 미국 개정 이민법 제정 전에는 초기 이민 1 세들이 사라지고 2 세들은 한인공동체인 교회에 머무르기보다는 미국사회 속으로 떠나면서 한인교회는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그와 동시에 한인의 모국을 향한 상상된 민족 정체성도 위기에 빠졌지만 1965년 이후의 새로운 이민의 물결은 다시 한인교회에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가톨릭계 케네디 대통령이 유럽민족 중심의 이민정책을 아시아계와 남미계에도 고르게

<sup>18</sup> 이선주, 26면.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 대다수가 영주권을 받았고 1970년대에는 해마다 3만여명이 가족이민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다. 1992년 엘에이의 인종폭동 사건은 재미 한인 민족 정체성 형성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각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산다는 명제 아래 미국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지 못 하던 중 4.29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새롭게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한인교회는 소수 민족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시기 한인 민족 정체성의 특징은 일단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확연한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민 1세대는 보편적으로 1965년 미국이민법 개정 이후 경제, 교육, 정치 등의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강하게 유지한다. 재미 한인 1세대들에게 한국은 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공간으로 그들의 공간적 삶의 영역은 미국이라고 하지만 문화적인 근거는 여전히 한국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는 갈 수 없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자주 접촉하는 공간은 모국인 한국과 연결되는 한인교회이다. 한인교회는 한인들만으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신앙과 문화의 공간을 미국 속의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곳이었다. 한국의 대형 교회를 모교회로 두고 미국내의 한인교회를 그 지교회로 모자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으로부터 신앙적으로나 정신적 지도를 받으며 영적인 수유를 받으려는 경향도 있어왔다. 예를 들어 순복음 교단의 경우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모교회로 하고 미국내 교회들은 선교지의 지교회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장로교 교단 역시 미국 장로교 교단내에 속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예배 및 목사 임명, 장로 임명, 그리고 교회 제반문제 처리등은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인들로 이루어진 특수성’을 강조해서 미국 내 교단의 직접적인 지휘를 벗어나 독자적 행동을 하는 양상이 많다. 그리고 미국인 교회들과의 신앙교류 보다는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와 친교’ 가운데서 한인끼리의 결속을 강화하고 협력하여 흩어진 한인들을 모아 살아가겠다는 ‘독립된 한인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특별한 절기 행사나 연합 예배, 부흥사경회 등은 한국내 유명 목회자들을 강사로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목회자들 스스로도 미국을 선교지라고는 하나 원주민인 미국인이 대상이 아닌 흩어진 한인들을 모으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당연히 주력 전도 대상은 처음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이거나 유학생 또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는 한인들이 된다. 이런 이유로 비개신교 초기 이민자들은 신앙적인 선택에서가 아니라 정착 초기의 절대적 도우미로써의 교회의 역할과 결혼, 장례 예식등 애경사의 부조, 자녀 한글 교육, 친목, 이민사회의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교회에 첫발을 들여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이런 교회 활동들에 친숙해져 감으로서 개신교인으로 거듭나곤 한다.

때때로 교회 내에서 목회자나 신자들 사이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겨 교회를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 대도시들을 제외한 중소도시에선 교회에서의 이탈이 자녀의 한인 정체성 과 교육 및 사회적 혹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일도 많이 목격된다. 물론 점차적으로 학연이나 지연을 중심으로 각종 친목단체와 업종별 직업단체들과 ‘계’와 같은 모임들을 만들어 상호작용의 그물망을 형성하였고 언론매체들이 일간지를 비롯하여 잡지들을 간행하여 활발하게 미국내 한국의 문화와 대중문화를 이식시키며 한국과 미국의 한인사회를 연계시켜주며 한인들의 민족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비공식 연줄망이 1세대들의 심리적 유대를 강화시켜주었지만 이들의 민족 정체성이란 이전의 시기의 한인들의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이전 시기의

한인들의 민족 정체성은 ‘조국해방’이나 ‘조국 건국과 재건’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한인 공동체였던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민족 정체성’이었다고 한다면 제 2 시기의 한인들의 민족 정체성은 좀 더 개인적이면서 시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의 것이 되었다. 그 예를 보자면 교회의 연간 주요 행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들이 3.1 절, 광복절 기념식, 설, 추석 명절을 맞아 음식 나누기 및 갖중 문화 행사를 열어 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들도 이민 교회사 제 1 기와 중간기를 지난 후에 제 2 기로 지나면서 그 특성이 조금씩 차이를 나타낸다. 초기 재미 한인들에게 위의 행사들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조국’을 향한 조금은 무조건적 민족 정체성이었다고 한다면 후기에 갈 수록 하나의 문화행사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역 문화제 때마다 개신교 교회는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풍물, 고전무용 시연, 태권도 시범등을 주도해 한인 공동체의 건실함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 보이는 역할도 하여 왔다. 각종 큰 규모의 한인 행사에는 미국 정치 인사와 참전 용사등을 초청해 ‘한인 공동체’의 건실함을 과시하기도 한다.

### I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재미 한인 종교 중 개신교가 민족 정체성 형성에 기여해 온 역사를 정리하면 재미 한인 역사 제 1 기(1903-1945)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하러 온 학생을 비롯하여 미국을 왕래한 사람들과 이민자 중에 개신교인이 많았던 이유로 미국 사회와 교류하기에 개신교 교회가 그 발판이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정착을 힘쓰는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재미 한인의 공동체는 형성이 되었고 이들의 민족 정체성은 당시의 역사적 실재였던 일본의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목표를 두고 형성이 되었다. 중간기(1945-1965)에는 한인사회와 이민교회가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일본 식민지 해방과 한국전쟁 후 ‘조국 건국과 재건’이라는 큰 명제 아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였던 시기였다. 제 2 기(1965-현재)에는 한국의 군사독재에 반대하며 인권 및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던 전반기를 보냈고 시간이 점차 흐름에 따라 이민 1 세대와 2 세대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민족 정체성의 층위가 다양해진 시기이다.

위의 연구에서 보듯 재미 한인의 민족 정체성은 고유하고 불변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그 속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해왔던 개신교 교회 안과 밖에서 역사의 어느 시간에 이산되고 다시 모인 구성원들에 따라 그리고 모인 공간에 따라 변화되고 재구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재미 한인의 민족 정체성은 초기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거쳐 혼란과 좌절 가운데 변화되어 왔고 한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재미 한인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촉발하는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분석은 다분히 ‘단일 민족적’이고 제한적인 해석의 틀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인종의 국가인 미국의 현실 속에서 개신교회가 한민족 공동체로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한국인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인종적 차이를 넘어 동화되지 못하고 미국에 형성된 ‘또 다른 한국’에서 재미 한인 개신교인들은 살고 있다. 물론 이런 특징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서로 집단화되는 미국사회의 일면이기도 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제시한 ‘운명이라는 한 별의 옷’은 인간의 상호 연관성과 잠재적인 ‘통합’의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러니하게 옷감의 실들이 오히려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해석으로 이 구절을 사용해 왔다.<sup>19</sup> 지금까지 재미한인의 개신교는 한인사회 속에서 비교적 분리보다는 통합의 기능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개신교의 배타성은 타종교와 타교단을 한인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 때도 있었다. 민족정체성의 개념은 다중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민족 정체성 규정의 문제는 재미 한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동안 ‘한국적’인 것과의 연관성을 추구하게 한다. 재미 한인 1 세든 2 세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한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미한인 개신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멜팅팟(melting pot) 정책으로 다인종 다문화를 흡수·통합하여 공존하는 미국에서 그리운 모국에 대한 정체성만은 잊지 않은 채 살아가고픈 재미 한인 동포들의 뜨거운 모국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일세기가 넘는 재미 한인 개신교의 성장은 이국만리 혈혈단신으로 떨어진 동포의 아픔을 감싸고 안아 함께 고된 이국 생활을 이겨낸 민족애의 한 산물이며 개신교는 그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곳곳히 재미동포들의 사상, 문화,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산실로 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재미한인 종교의 특성 연구를 민족 정체성 형성·변천과 관련하여 개신교 뿐만 아니라 타종교를 포함한 상호관계를 더욱 폭넓게 연구하여 재미 한인사회를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학 학계에도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

<sup>19</sup> 피터 우드, 김진석 역,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서울: 해바라기, 2003, 32-41 면.

## 참고문헌

-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 Anthony, Smith,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 Chang, Edward Taehan. "The Korean Diaspora and Rethinking Asian-American Theory" in *Japanese Studies around the World 2005: The Korean Diaspora and Strategies for Global Networks*. Japan: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2006.
- Min, Pyong Gap. "The Structure and Social Function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 (4): 1370-94, 1992.
- Min, Pyong Gap and Kim Jung Ha. *Religions in Asian America: Building Faith Communities*. CA: Altamira Press, 2002.
- Wood, Peter, 김진석 역,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해바라기, 2005.
-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 편람』, 과천: 탐구당 문화사, 2005
- 김왕배, "미주 한인 후예들의 민족주의: 민족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003, 봄/여름호 김원용 외, 『재미 한인 50 년사』 혜안, 2004.
- 김중서,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류대영, 『미국종교사』, 청년사, 2007.
- 박준규, "복합정체성, 그 가능성과 한계: '미주 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아이덴티티" 『역사비평』, 58(2), 2002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혜안, 2003.
- 이덕희 외, 『북미주 한인의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2007.
- 이상일, "3.1 운동 이후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전개", 『暴東古典研究』, 16, 1999.
- 이영민 외, 『북미주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7.
- 이선주, 『미주한인공동체 이야기: 고난과 영광의 100년 (상)』, 크리스천 헤럴드, 2006.
- 이선주, 『미주한인공동체 이야기: 고난과 영광의 100년 (하)』, 크리스천 헤럴드, 2006.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미주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4.
- 한미동포재단,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 삼화인쇄, 2002.
- 홍선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의록』, 연세대 출판부, 2005.